

“치유와 구원(Therapy & Salvation)”

■ 이종윤 원로목사

구약성경에서는 「질병과 고뇌는 인간의 쫓김이다」했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치유하신다」고 했다.(시 107:17-22)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게 된 이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요 9:2) 물었던 제자들에게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셨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창 1:31) 하셨으나, 사람들이 죄를 범한 후 인간과 자연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다.(창 3:17, 18) 구약성경에서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면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창 50:1-3) 예언서, 역사서, 지혜문학에서는 대부분 부정적 역할로 언급되어 있다.(대하 16:11,12) 예레미야서에는 「의사의 무가치함과 그들 노력이 치료에 도움이 없다」(렘 8:22-9:6)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고 인간 생명에 처방자시며, 인간 중에 문제를 해결할 자는 없다 한다. 선지서에서는「칼과 기근과 전염병」(렘 14:12) 등의 언약적 심판의 문맥 아래 하나님의 저주가 나타났다. 신약성경에서도 예수께서도 속담적 표현 즉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눅 4:23)든가 「사랑받는 의사 누가」(골 4:14)라고 불렀지만 의사(헬, hiatros)라는 단어는 신약에는 7번 나타났지만 예수께서 병자와 부정한 자, 소외된 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면서 메시아로 오신 주님은 치유기적과 자연기적을 행하시면서 자신이 생명의 주(Lordship of Life)되심과 자연의 주(Lordship of Nature) 되심을 계시하시므로 죄를 사하심과 질병을 고치시기도 하셨고, 부활을 통해 영·육을 구원하시는 전인(全人) 구원을 계시하셨다.

의료기술과 치유를 복음서에서 그 관계를 엿볼 수 있다. 예수님은 나병환자에게 성전에 가서 깨끗해진 것을 보이라 하셨고(막 1:44, 눅 5:14),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자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다.(요 9:1-41) 이것들은 회랍인들의 의료 행위라기보다는 유대인의 종교적 정결 행위이며 계약 백성에 참여키 위한 종교적 규례로 볼 수 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이를 고치신 주님의 치유 기적을 종교지도자들이 인정치 않으려 한 것으로 보아, 헬라인의 의료 행위와 그 형태가 비슷한 점도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유대인의 하나님은 바람과 파도를 주장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며 자연 질서를 넘어서라도 자기 백성이 자기 뜻과 일치할 경우 질병이 없게 할 것이며 여호와가 치유자라고 선언하신다.(출 15:25, 26)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낮게도 하시며, 내 손에서 능히 뺏을 자가 없느니라 심판과 옹호를 하신다.(신 32:39) 호세아도 이스라엘을 고치실 이는 앓시리아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선언한다.(호 6:1) 치유자로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고치시고(렘 3:22) 회복시킬 것을 약속해 주신다.(렘 30:17) 개인을 고치시고 마음을 갱신시키는 하나님은 국가의 흥망성쇠와 자연까지 주장하신다.(겔 47:8-12) 하나님의 치유 사역은 말라기서, 이사야서, 역대하, 시편에서도 나타난다. 치유사역의 동기는 새로운 세대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과도 연관된다. 마태복음 8장에 나타난 처음 세 치유 기적들 ①나병환자 ②백부장의 하인 ③베드로 장모의 치유기적 중 나병환자는 당시 격리상태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전염병으로 분확률이 높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신으로 그 병이 깨끗이 물러갔다. 백부장의 믿음으로 이방인인 그 하인이 치유를 받았다. 베드로 장모의 경우는 주님께서 이사야 53:4을 인용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친히 병을 짊어지셨도다」 마태복음에서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며 고쳐주셨다. 건강한 자에겐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마 9:12, 13) 여기서 병은 죄를 말한 것이고, 질병을 고치심이 죄를 고치시고 용서하심을 말씀한 것이다. 영적 병든 자가 치유기적을 통해 마음을 입는 것은 메시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죄 용서를 받고 은혜로 전인(全人) 구원을 받는 것의 예표라 할 수 있다.

-한국장로신문 [제 1686호] 2020년 5월 2일 발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까지 교회에서의 1, 2, 3, 4부 예배는 평온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양보와 기도로 도와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부터 방역지침도 생활방역으로 전환되었지만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은 그대로 준수하여야 하므로 아직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 이번 주에도 교회에서의 4부 예배 형태를 온라인 예배와 함께 병행합니다.
 교회학교는 이전처럼 부서교역자의 동영상 설교 등 SNS 예배자료를 활용한 가정예배로 대체하여 드립니다.
 다만 일반 학교의 등교수업이 다음 주부터 단계별로 개시됨에 따라 저희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교회에서의 교회학교 예배와 집회를 재개하고자 합니다.
 준비가 되는대로 해당 부서를 통해 안내를 받으시면 그에 맞추어 잘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이전처럼 실시간 예배 시작 5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여 동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처럼 1부와 3부 예배를 실시간 영상으로 보내드립니다.
 접속방법은 이전처럼 아래 기재된 서울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유튜브에서 [서울교회 공식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예배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현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어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도사 박미라	교육전도사 김은숙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교사 전광해(서아시야), 이은준(강해경, 양해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연, 조남해(방글라데시), 조범연(강화정, 우상씩(강경옥(인도), 서광종(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해(말리야), 김영호(서항경(러시아), 허정범(한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캐나다), 김종일(백순미(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버이, 필리몬, 프란시또, 수레시, 수비쓰, 알로롱, 비사누밴도, 보디산또, 린롱, 수완존(영글리데시) /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정상진(홍성일(필리우), 이재울(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종윤**
Lee Jong-Yun, Ph. D., D.D., D. D.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

■ 고전 1:18-21

바울은 이사야 29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을 죄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거나 지옥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전혀 찾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지혜를 의존하여 살려고 한다면 참시는 어떤 대상을 우러러볼 수 있고, 그가 잠시 만족을 줄 수 있을지 모르나 중국에는 파멸의 늪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더구나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를 미련케 하셨다고 했습니다.(20절)
 주님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그 지혜 자랑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말하는 자들도 사용하시지만, 지혜 있는 자들보다 미련한 자들을 선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없는 자들을 택하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고전 1:27-28)

1.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지혜란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렘 9장) 또한 잠 9:10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이것을 부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를 미련케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받는 길도 찾아낼 수 없습니다.
 혹자는 왜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를 미련케 하셨는지 따지고 싶을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을 때 피조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므로 그 모든 지식에서 멀어지고 미련케 되어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고 구원을 받는 길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령에서 떠나 있다”(엡 4:18). 그리고 때가 되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 주시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 주셨습니다.

2.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신다

본문에 쓰인 헬라어 ‘케리그마’는 일반 성도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활동을 하는 개인전도보다는 공동 석상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도 이런 복음 선포 방식은 미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하나님의 택한 모든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능자이십니다. 사람들의 꿈에 나타내시든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전염병에 온 세계가 다 고통 받고 있는 때에 유일한 치료제로 장대에 달린 구리뿔을 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들고 고달픈 방식인 복음 선포를 택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사도들을 비롯하여 전도자들의 희생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토를 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고전 1:25) 더구나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미련한 방식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데 뭐라고 항변하겠습니까?

맺는 말

말씀 선포하는 주의 종들을 귀히 여기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직접 정하시고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목사라고 해서 다 존경받아야 할 자는 아닙니다. 목사는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도 인간이기에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의 입을 통해서 증거 되는 진리의 말씀까지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와의 관계 때문에 분쟁이 있는 교회의 부작용 중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 부음을 받은 종이라고 사울 왕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은 다윗처럼 우리도 살리는 영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서울교회에도 반드시 참 목자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런 목자를 믿음으로 알아보고 온 교회가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 서창원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조원영 목사	오치열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전재홍 목사	전재홍 목사
III 오후 2시	서명철 목사	이관규 장로
IV 오후 4시	장석남 목사	장석남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엠편 6:1-3...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6(8).....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98(아버지주일)...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31(46)...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고전 1:26-31...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 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사람보다 지혜롭고 강한 하나님”... 서창원 목사
 * 찬 송 Hymn559(305)...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5시 · 인도: 가족 중 어른, 설교 장석남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딘후 4:18 인 도 자
 찬 송 288(204) 다 함 께
 기 도 가 족 중
 성 경 막 8:14-21 인 도 자
 설 교 ...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 인터넷 영상
 찬 송 405(458) 다 함 께
 주기도 다 함 께

수요예배

(개 인 기 도)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연·박수강·김복희
 설 교 조원영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엠편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박송기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연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IV 부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영어예배	예루살렘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전 1:30)		
수요 I 부					금주의 성구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모 임

1. 여호수아회 / 14일(목) 오전 7시 사랑의 교회(이종윤 원로목사 설교)
2. 한국군선교연합회 총회 / 14일(목) 오후 2시 여전도회관(이종윤 원로목사 특별기도)

◆ 알 림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9호
 예배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11. 이번주 심방 일정
 1-5, 11-3, 13-12, 14-1-2, 15-1다락방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새벽기도
1,509명	286명	1,795명	1,620명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입, 지출 내역보고(5/3)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5월3일	헌 금	36,989,200	
	경 조 비		390,000
	출 판 비		210,000
	복리후생비		93,700
	통 신 비		404,140
	수도광열비		713,820
	차량유지비		448,600
	소모품비		163,400
	잡 비		16,000
	환경유지비		80,000
	수선유지비		1,247,000
	식당운영비		241,550
	합 계	36,989,200	4,008,210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확산에 따른 서울교회 영상예배 지침

-주일 영상예배 지침-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주일예배 준비와 예배 자세에 관한 아래의 지침을 따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먼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공간을 정숙하게 구별하여 주십시오.
- ② 예배자로서의 옷차림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복장과 자세 모두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가 장소만 바뀐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경건하게 예배드리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예배 시작 5분 전, 마음을 모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실시간 영상은 5분 전부터 방송됩니다.
- ④ 예배순서에 적극 응답하며 참여하여 주세요. (“아멘” 댓글 작성 등)
 * 기원기도, 신앙고백, 성경봉독과 설교 시 응답, 찬송, 봉헌 등
- ⑤ 축도(폐회기도) 후, 1-2분간 개인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⑥ 헌금은 실시간 예배의 헌금시간에 맞추어 따로 준비한 접시나 바구니에 구별하여 드리시고, 추후 교회의 주일예배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함께 드리시면 됩니다.